

## 시대의식 담은 출판전공 학위논문들

출판의 자유, 저작권, 전자출판 등 출판환경 변화 반영해...  
업계의 적극적인 연구 지원 이뤄져야

1980년대 초반 중앙대를 비롯한 종합대학 특수대학원에 출판잡지전공 과정이 개설되면서부터 본격적인 학위논문들이 발표돼왔다. 초기에는 초기 한국출판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언론출판의 자유, 저작권, 전자출판 등 시대 변화를 담아내고 대응하기 위한 주제들이 많이 다뤄졌다. 그러나 출판 연구에는 아직 용어의 통일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한국출판학회는 출판학 연구의 시점을 1969년으로 잡는다. 이때부터 1981년까지를 '출판학의 개척기', 1982년부터 1998년까지를 '출판학의 발전기'로 규정한다. 출판학의 개척기에는 출판의 학문적 정립과 교육방법론 개발에 집중했고 독자 연구로 출판문화 연구의 외연이 확장됐으며 출판역사 연구가 강화된 시기다. 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한 이론작업이 활발했고 변화된 저작권 환경에 대한 대처방안이 제시됐으며 교과서 연구와 전자출판 연구 및 출판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했다.

출판학의 발전기는 특히 출판학의 개척기에 이뤄진 교육방법론의 개발 성과로 1980년 신구전문대학 인쇄과에 출판전공이 신설됐고, 같은 해 중앙대에 신문방송대학원이 신설돼 출판잡지전공 과정이 마련됐다. 1989년 신구전문대 인쇄과에서 출판전공이 출판과로 독립돼나오면서 전문대에서 본격적으로 출판교육이 이뤄졌다. 현재는 13개 전문대학에 출판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고, 중앙대를 비롯해 동국대, 서강대 등 7개 종합대학의 신문방송대학원이나 언론홍보대학원 등 특수대학원에 출판잡지전공 과정이 개설돼 있다. 탐라대, 광주대 등 4년제 대학 학부에도 출판관련학과가 신설되고 있는 추세다.

출판학 관련 학위논문 또한 이 출판학의 발전기 초기 대학원에 출판잡지전공 과정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학위논문들은 출판일반, 저작·저작권법, 제작, 출판물, 전자출판, 유통·시스템, 독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초기 학위논문들(이 글에 소개된 논문은 모두 대학원 출판잡지 전공자들의 석사학위논문임)은 <한국기독교잡지사의 시대구분 및 시대별 특징에 관한 연구>(송기태, 1981, 경희대 신문방송대학원), <개화세력사회의 출판 연구>(고덕환, 1985,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등 한국출판 태동기의 출판사적 연구가 주류를 이뤘고, <언론출판의 자유와 헌법적 한

계에 관한 연구>(이치정, 1986,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등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연구도 활발했다. 특히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연구는 군사정권 하의 출판통제정책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소중한 작업이었다. 그 뒤로도 출판 관련 논문들은 끊임없이 시대와 소통하고 시대상을 반영하며 시대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 1980년 후반 저작권법에 대한 관심 늘어

198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한국 출판은 새로운 저작권 환경에 놓이게 된다. 1990년대 초반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 WTO 가입 등을 계기로 한국에서 그동안 무시돼왔던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이에 발맞춰 학위논문들도 저작권에 관한 연구 성과를 활발히 담아내기 시작했다. <국제출판저작권협약과 한국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박원경, 1989,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국제저작권협약 가입이 국내 출판계에 미친 영향>(조용남, 1993, 경희대 신문방송대학원), <출판저작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한 사례연구>(남미령, 1993,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등이 이 시기에 나온 논문들이다. 저작권법 관련 논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인터넷이 상용화하고 전자출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문제를 주로 다루기 시작했다.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수용에 관한 연구>(김정욱, 1996,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멀티시대 저작물 이용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상 문제와 대응>(이세영, 1996, 서강대 언론홍보대학원), <전자출판물의 저작권법상의 문제에 관한 연구>(전민철, 1999,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등이 그 예다.

또한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는 도서들이 생겨나자 <베스트셀러에 나타난 감정구조 연구>(심미애, 1996, 서강대 언론홍보대학원) 등 베스트셀러에 대한 연구도 시도됐으나

베스트셀러에 관한 연구는 학위논문 차원에서 그리 활발하지는 않았고 출판학계나 문학계에서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최근 <베스트셀러 소설의 영향 변수에 관한 연구>(오태수, 2000,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와 같이 1990년대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연구한 학위논문들이 하나둘 발견된다.

이밖에 1990년대 이후 새롭게 제기된 연구성과물로는 ISBN, 사회변화에 따른 출판인의 의식구조, 문화산업으로서 출판사의 활성화 방안 등이다. 이와 함께 매킨토시 도입으로 새로운 체제로 개편된 편집디자인에 관한 논문들도 1990년대 이후 우리 출판의 변화를 보여주는 논문들이다.

### 출판유통의 개선방안에 논의 집중해

출판관련 논문 가운데 가장 활발한 연구분야는 바로 출판유통이다. 출판학회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해방 후부터 1982년까지를 출판유통개념의 '도입기', 1983년부터 1992년까지를 출판유통의 '이론개척기', 1993년부터 현재까지를 출판유통의 '이론전개기'로 구분한다. 출판유통에 관한 논문들은 이론 개척기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이론 전개기에는 이론개척기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도서유통에 관한 비교연구>(윤형두, 1984,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출판경영인과 출판편집인의 광고에 대한 태도조사연구>(윤주삼, 1987,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한국 출판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윤재민, 1990,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한국 도서출판물 유통구조 변화의 사적 연구>(부길만, 1990,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등이 이론 개척기의 논문들이고, <서점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유영주, 1996, 동국대 정보산업대학원), <출판사와 서점간의 마케팅 갈등구조에 관한 연구>(조성수, 1996, 경희대 신문방송대학원), <출판사의 광고 행태에 관한 연구>(류정보, 1997,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출판산업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성의현, 1998,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등이 이론 전개기의 논문들이다. 그러나 유통분야의 연구는 내용적으로 여전히 대형도매기구 설립을 중심으로 한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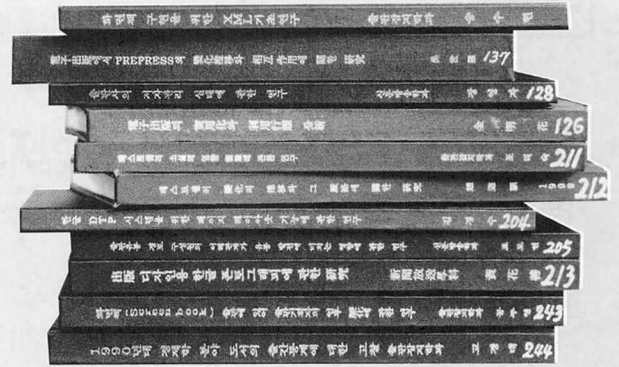
논의가 지배적이었다는 것이 출판학회의 지적이다. 국내 출판유통을 선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유통분야의 연구 경향은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다. 새로운 업체의 출현, 컴퓨터 정보통신기술의 보급, 유통시장의 개방과 국제화 등 국내 출판유통에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

다. 특히 최근 유통분야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출판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김난영, 1998,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출판산업에서의 사이버 마케팅 연구>(김정기, 1999, 서강대 언론홍보대학원),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출판산업의 변화에 관한 연구>(정진향, 2001, 서강대 언론홍보대학원) 등 정보화에 따른 유통환경의 변화에 관한 논문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 전자출판 연구논문 늘지만 수명은 짧아

최근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전자출판 관련 분야다. 전자출판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인데, 이때는 <화면책 출판용 서지데이터베이스 도서관 활용 방안 연구>(김인숙, 1993, 동국대 정보산업대학원), <전자출판의 미래와 전자도서의 전망>(송민정, 1990,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로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이나 문서인식시스템, 멀티미디어, 일반적인 전자출판의 전망 등으로 그 주제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 이용의 급속한 확산으로 전자출판에 대해서도 좀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자출판에 있어서 출력시스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김원철, 1997,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전자교과서 활용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배현미, 2000,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화면책 구현을 위한 XML 기초 연구>(송수현, 2001,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등이 그 성과물들이다. 특히 전자출판 분야의 최근 연구성과들은 업계에도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의 이기상 교수는 "최근 전자출판 분



최근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전자출판 관련 분야다. 사진은 전자출판을 주제로 한 대학의 학위논문들.

야 연구성과는 업계에 선도할 정도"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현대의 기술 사이클이 매우 빨리 변화해 이런 연구성과들을 오래 이용할 수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전자출판 분야에서는 '화면책' '전자책' 등의 용어를 동시에 쓰는 등 각 대학이나 업계 사이에 통일된 용어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저작권법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출판 관련 학위논문들은 한국출판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해왔고 그만큼 출판의 질적 발전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좀더 원론적이고 깊이 있는 학문적 연구성과는 많이 생산해내지 못했다"고 출판학회 사무국장인 김기태 교수(세명대 미디어학과)는 지적한다. 현실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연구자들의 강박관념에도 원인이 있지만 업계와 학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지 못했던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김교수는 분석하고, "학계와 업계가 좀더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동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장근 기자